

# 독문학사

(계몽주의)



*Prof. Dr. Jeong-Jun Lee.*

1조. 강영호, 김성희, 남정화, 김혜인, 김화연

# << 목 차 >>

## 1. 독일의 계몽주의의 역사적 배경

- (1) 시대적 배경
- (2) 종교개혁
- (3) 새로운 천체관의 등장
- (4) 이외의 배경
- (5) 계몽주의로 생겨난 두 혁명
- (6) 유럽계몽주의의 상이한 전개(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 (7) 바로크

## 2. 독일의 계몽주의

- (1)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 ~ 1781)
- (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 3. 독일의 계몽주의가 반영된 문화상

- (1) 문학의 주변상황
  - 가. 서적시장의 형성
  - 나. 잡지를 통한 문학여론
- (2) 비평의 발달
- (3) '교육의 장' 연극

## 4. 참고문헌

## 1. 독일의 계몽주의의 역사적 배경

칸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Was ist Aufklärung?)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출구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미성숙의 원인이 오성의 결여에 있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지도 받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가 없는 것에 있다면, 그 미성숙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라!” 가 계몽의 표어이다.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이성적 자립성을 요청한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자아’를 세계와 직접 관련시키고, 모든 경험적 내용을 이성을 통해 ‘비판적’ 태도로 파악할 용기와 결단을 권하고 있다. 이로써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행위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립적인 이성과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라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 (1) 시대적배경

오늘날 정신의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의 계몽 ‘Aufklärung’은 17세기 영국을 비롯해서 18세기 중엽에는 독일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말은 당시 신의 계시에 의존했던 기존 관념에 대립해서 인간본성에 대한 자각과 인간이성에 근거한 조화로운 사회구성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새로운 자각에서 비롯된 당시의 시대정신을 뜻하며, 18세기 후반에 유럽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이다. 계몽주의는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려는 즉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위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각을 인간 이성의 자율적인 활동에서 산출된 그리고 합리적 비판을 견디어낸 생각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으며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시대적인 사조이다. 즉,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상, 사회 제도, 도덕, 문화, 종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계몽주의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이었다.

이로써 17 18세기의 한 시대개념으로 설명되는 계몽주의는 이른바 중세 봉건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하나의 세계관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관을 창출할만한 객관적인 역사적 조건이 반영된 정신운동이 되었다. 따라서 중세의 신중심에서 인간이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봉건제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궁정귀족중심의 정치형태에서 시민중심의 정치형태로, 귀족의 예절규범 중심에서 개인중심의 취미 옹호로 이행되는 역사적 토대를 형성해낸다. 달리 말하자면 계몽주의는 중세에 이미 생성되기 시작한 시민계층이 근대이후 변모해가는 경제구조에서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이 발전해가며, 장차 19세기의 역사를 주도해나가고, 20세기에서는 보편화된 계층으로 되기까지 자신들의 계층적 이해를 공고히 다져가기 위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 초석을 마련한 출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문학에서 계몽주의 사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초기 시민계층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독일 문학을 이해하려면 계

몽주의를 활성화시켰고 19세기 문화 전반을 담당했던 시민계층의 자기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 (2) 종교개혁

근대 초기, 16세기에 독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년대 유럽에서 대국의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독일연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후반에 접어들면서 프로이센<sup>1)</sup>이 강자로 등장했지만 오스트리아의 명성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16세기 교회는 도덕적·정신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하지 못하였고, 신앙심과 교회 본연의 임무를 점점 잃어가 마르틴 루터<sup>2)</sup>의 등장으로 종교개혁<sup>3)</sup>이 이루어졌다. 종교 개혁은 루터에 의한 카톨릭에 대한 반항 운동에서 시작한다. 1517년 루터는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도화선으로 당시 카톨릭에 대한 불만에 불이 붙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 이후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에는 끊임없는 반목과 투쟁이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618년에서 1648년에 걸쳐 일어난, 엄청난 파괴와 비참함을 동반했던 '30년 전쟁'이었다. 30년 전쟁은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와 파괴를 가져왔다. 베스트팔렌조약<sup>4)</sup>은 17세기 유럽 질서에서 정치적·신앙적 위기를 가져다주었으며, 로마의 가톨릭 교외와 독일제국의 지배적 역할이 끝나게 되었고, 북동부 지역에서 프로이센은 1700년대 이후 독일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 (3) 새로운 천체관의 등장

또 다른 중요한 배경으로는 새로운 천체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5-16세기에 걸쳐 쿠자누스 Nikolaus Cusanus, 브루노Giordano Bruno, 코페르니쿠스Nikolaus Kopernikus 등에 의해 정립된 새로운 천체관에 의하면, 우주는 무한한 것이고 지구는 우주 또는 세계의 중심점이 아니다. 새로운 천체관은, 천동설(지구 중심설)과 유한한 천구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고수하려는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 걸쳐 새로운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으로 인해 지구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점이 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세계의 중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인간은 각자가 세계의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의 주체화는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기존의 세계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근세인들은 자신의 능력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무한한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 세계 내에서의 인간 삶의 좌표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1) 1947년까지 독일 북부에 있었던 주로서 1918년까지는 베를린을 수도로 한 호엔촐레른 가의 왕국이었다. 발트족의 일파인 프루사(고대 프로이센어: Prūsa)에서 이름을 땄다. 한국에서는 흔히 영어식 발음을 따서 프러시아라고 읽기도 한다. 프로이센의 뜻은 '러시아에 가까운'이며, 한자 표기는 보로서(普魯西)이다.

2) Martin Luther(1483.11.10 ~ 1546.02.18). 독일의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 면죄부 판매에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여 교황에 맞섰으며 이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통일에 공헌하였으며 새로운 교회 형성에 힘써 '루터파 교회'를 성립하였다.

3) Reformation(宗教改革). 16~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교회의 혁신운동.

4) Peace of Westfalen.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로마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 (4) 이외의 배경

이외에도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대륙의 발견과 대규모의 항해를 통한 낯선 문화와 관습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서 일어난 국가, 사회, 경제 체제 등에 있어서의 극심한 변화와 이에 따른 혼란 등을 또 다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인간 이성은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비교적 확실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 (5) 계몽주의로 생겨난 두 혁명 - 프랑스대혁명, 영국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sup>5)</sup>의 시기, 나폴레옹<sup>6)</sup>의 침입 결과 1806년 8월 6일 신성로마제국<sup>7)</sup>은 그 존재를 감추게 되었다. 그 결과 더 이상 독일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 18세기 후반 이후 농민들의 속박 상태를 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봉건적인 속박 관계에서 농민들은 부역과 조세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농노제가 폐지되었고, 영주의 재판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농노해방은 봉건적 제도에서 벗어나고 시민 계급의 성장과 함께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비록 나폴레옹은 유럽 통일에 실패했지만, 그와 프랑스 군대는 독일과 유럽 전역에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함께, 조국에 대한 각성과 그로인한 애국심과 충성의 대상이 '기존의 영주나 군주에서 국민과 국가'로 서서히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이다. 자유경쟁 원리가 승리한 산물이며 농업인구의 감소, 공장제도의 성립, 사회적 불평 등에 기초한 계급분열 및 대중의 궁핍화를 가져옴.

#### (6) 유럽계몽주의의 상이한 전개(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계몽주의자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면서, 이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공통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물음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답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답들은 특히 그들이 속한 국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무엇보다도 각 국가의 계몽주의가 서로 다른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기반 위에서 전개, 발전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

5) Révolution Française. (1789년 7월 14일 - 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1789년에 붕괴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에게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 동안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체제가 바뀌며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어진 두 차례의 혁명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혁명 (1830년) : 샤를 10세 타도.

2월 혁명 (1848년) : 당시 자본가의 돈밖에 모르던 루이 필립을 타도. 프랑스 왕국 종말.

6) Napoléon I(1769.8.15 ~ 1821.5.5). 프랑스의 군인·제1통령·황제. 프랑스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제1제정을 건설했다.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혁정치를 실시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세력을 팽창했다. 그러나 러시아원정 실패로 엘바섬에, 워털루전투 패배로 세인트 헬레나섬에 유배되었다.

7) Heiliges Römisches Reich. 962년에 오토 1세가 황제로 대관한 때로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帝位)를 물러난 1808년 8월까지 지에 걸쳐 독일 국가 원수(元首)가 황제 칭호를 가졌던 시대의 독일제국의 정식 명칭.

계몽주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적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카시러와 아자르의 계몽주의 연구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부터 차츰 계몽주의 운동은 지역별 나라별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괄적으로 유럽 전체를 묶어 다룰 수 없다는 자각이 생겨난다. 사실 유럽 계몽주의 운동은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토대 위에서 싹튼 것이기에 서로 상이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 유럽 계몽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세 나라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를 살펴 볼 때, 우리는 이 운동이 서로 각기 다른 기반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면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각 나라의 계몽 운동을 수행한 층이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주로 상인이나 제조업자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고, 프랑스에서는 귀족이나 어떤 직업에도 매이지 않은 문필가와 같은 자유 직업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주로 교수, 행정 관리, 목사(이들 모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둘째로, 각 나라의 계몽 운동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바탕 위에서 행해졌다. 영국은 1642-1649년의 청교도 혁명과 1688년의 명예 혁명을 통해 권력 평등의 필연성을 배운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루이 14세가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짐이 국가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의 정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은 수많은 연방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국가 권력을 통한 정치적 압력이 프랑스에 비해 훨씬 약했다. 이를테면 국가에 의한 검열과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로,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위에서 서로 차이나는 생각들이 형성되는데, 이를테면 나라별로 상이한 국가관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그 이후의 사상, 경제, 정치 등의 모습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30년 전쟁'이라는 비참한 경험을 겪었었다. 30년 전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절대적 의미가 형성된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절대적 필요를 알게 해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넷째로,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종교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국가 교회와 몇몇 작은 종파들이 있었고, 프랑스는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 교도였고, 독일의 경우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이 서로 다른 종교적 상황으로 인해 각 나라의 계몽 운동은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곧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프랑스의 주요 계몽주의자들이 무신론자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적 운동이었던 독일 계몽주의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카톨릭의 보수성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의 주요 계몽주의자들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무신론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섯째로,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에 의해 대표되는 합리론이, 그리고 영국은 로크에 의해 대표되는 경험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라이프니츠에 의해 대표되는, 프랑스의 그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합리론이 철학적

전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각기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은 각 나라의 계몽주의 운동에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독일
공통점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변혁 필요성 인정	
차이점	역사과정에 의식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승리가 불가능 사회의 혁명적 변혁 지지	역사과정의 자연발생적인 흐름 믿음 사회의 혁명적 변혁 거부(보수적, 반혁명적)

이러한 차이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의 시민계층은 정치, 경제영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 결과 독일 부르주아 계몽주의자들은 관념론자였고, 시민계층은 정치 사회적 영역이 아닌 철학영역에서 혁신적인 이념을 앞서 갖게 되었다.

(7) 바로크

30년 전쟁의 폐해

- 독일의 정치적·경제적 손실, 분열 심화
- 프랑스의 유럽 유행 주도
- 궁정의 화려함과 종교적 초월의식, 세속적 쾌락과 죽음의 공포
-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Carpe diem(오늘을 잡아라)

## 2. 독일의 계몽주의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독일 철학자로 레싱과 칸트를 꼽을 수 있다. 다음은 그들의 업적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1)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 ~ 1781)

한편 그는 예술가는 자기 창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인간의 관심과 걱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자연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항상 인간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예술이 계몽에 협력해야 하고, 그 임무는 사람들의 도덕 정신을 교육하는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은 현실과 모순되지 않으며 현실의 특징을 묘사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그는 예술을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예술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귀족계급의 도덕적 ‘갱신’과 전제정치의 ‘완화’를 촉진 시키게 되기를 기대하였다는 점에서 봉건제도에 반대하던 독일 부르주아들의 미약함을 알 수 있다.

## (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라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진 비판서 저술하였다. 칸트 철학을 흔히 비판철학이라 일컫는데, 여기에서 비판이란 가능 근거를 따져 묻는 것, 즉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되묻는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에서 그는 ‘인간이 보편적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답하였다. 근대 서양 철학의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본유 관념)을 갖고 있으며, 경험의 역할은 이성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지식을 일깨우는 데 머무른다고 본다. 반면 경험론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라 본다.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하였는데, 즉 그는 인식의 형식(또는 능력)은 본래부터 갖고 있지만 인식의 내용(또는 재료)은 경험으로 얻을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경험을 재료(내용)로 삼되, 경험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인식 능력(형식)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경험을 재료로 삼는다’는 것은 인식 주체의 능동적, 자발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이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계몽주의적 주체를 담고 있음이 드러난다.

『실천이성비판』에는 그의 윤리학을 서술했는데, 여기서 그는 선한 행동이 의무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덕률은 지상명령(양심의 절대 무조건적 도덕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그대가 보편율로 지향하는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사람을 올바른 행동 선택의 자유를 지닌 독립된 윤리적 주체로 보았다.

한편 칸트의 사회정치적 견해는 타협적 성격을 띤다. 그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투쟁 방법에 대해 반대하였고, 정부에 의해 실현되는 개혁을 지지 하였다. 이는 부르주아적 개혁에 관하여 침통해 하면서 동시에 혁명을 두려워하고 귀족정치에 협조할 용의가 있는 독일 시민의 반(反)봉건적 모상이 반영한다.

## 3. 독일의 계몽주의가 반영된 문화상

### (1) 문학의 주변상황

#### 가. 서적시장의 형성

18세기 후반 경제가 발전되고 신용거래가 형성되면서 서적도 시장법칙에 따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과거 소비자(주로 귀족)와 작가가 일대일로 연결된 후원제도에서 벗어나 작품 또한 시장경제로 들어서면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커니즘으로 변화하였다. 서적시장을 통해 독자는 중개상인을 통하지 않고 시장에서 직접 서적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후원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작가는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서적시장의 형성’과 ‘자유작가의 출현’은 귀족적 취향의 궁정문학의 해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유로움을 얻는 대가로 경제적 불안정을 겪게 되었다. 서적이 상품화 되자 시장법칙에 따라 독자의 흥미가 서적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



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독자의 구미에 맞게 저술하는가 하면, 출판인에 종속되는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원고를 출판인에게 넘김과 동시에 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작가들은 끊임없이 경제적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다. 자연스레 저술의 질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계몽이란 차원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을 비평이 담당하였다.

#### 나. 잡지를 통한 문학여론

서적시장이 형성되면서 시민여론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민여론은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를 매개하면서 시민계층의 윤리를 교육시키는 무대가 되었다. 시민여론은 문학을 통해 문학여론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문학여론의 기반은 서적생산이 라틴어 중심에서 독일어로 점차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민문화 형태로 자리잡은 신문잡지<sup>8)</sup>들에 있었다. 고상한 신문을 만들려는 작가의 시도는 독일어를 문학어로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며, 지식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8세기에 비로소 문학적 저널리즘과 비평이 등장하였다.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시민사회는 예술과 비평을 통해 계몽주의의 가치와 삶을 견고히 다져가며 나아가 비평에서 자기성찰을 해 나가며 간접적으로 정치여론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잡지들은 시민계층의 성숙을 위한 '계몽주의 매체'로서 계몽주의 사상을 일반인들에게 보급시키고 공개적인 토론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 (2) 비평의 발달

비평은 르네상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재발견과 더불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계몽주의에는 근대문예비평에 이르게 된다. 이전의 비평이 성서 해석을 위주로 한 문헌학적인 텍스트 비평이었다면, 16세기 중반 이후 스칼리거(Scaliger)가 그리스 문학과 라틴 문학 간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면서 점차 문예비평으로 확대된다. 18세기 초기의 비평 형태는 문체, 장르, 신분의 조화를 이루어야 했고, 도식화된 사회적 기대치에 모순되는지 모순되지 않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서층의 증가와 서적시장의 상업화 그리고 변화하는 작가의 역할 등을 통해 근대문예비평이 발전 되어갔다. 특히 1730년 이후 작가들이 점점 대중의 요구와 시장규칙에 따르고, 문학생산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가 발달함으로써 근대비평이 형성되었다. 근대문예비평은 오락통속 서적에 대항하여 독자에게 서적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서적을 겨냥한 비평은 1세기가 지난 후에나 행해질 수 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문학발전을 비판적으로 보기 앞서 대중의 훌륭한 취미 형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위한 준거로 고대 작가들의 이론과 작품을 규범으로 정하였고, 이러한 계몽주의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고트세트(Gottsched)였다. 고트세트는 프랑스의 고전주의를 매개로 하여 이성에 근거한 자신의 시민적, 교육적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규범이 이성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그 규범은 확고한

8) 최초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술잡지 Gelehrtenzeitschriften」와 최초의 연극잡지인 「연극극장의 수용과 역사에 관한 기고들 Beiträge zur Historie und Aufnahme des Theaters」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40년대 이후부터 확산된 문학지는 문학작품과 비평을 주로 실은 「문학기관지 literarische Organe」와 70년대는 하층민을 계몽하기 위해 출간된 「일반 교양 오락잡지 allgemein belehrendes und unterhaltendes Magazin e」 및 18세기 후반에 정치적 관심이 반영된 「국가시민잡지 Staatsbürgerliche Journale」 등이 있다.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고대규범의 권위만으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범이란 예술작품에서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건전한 이성의 진술’이었다. 고트세트는 “우매한 대중이란 흔히 사물을 이상화하여 상당히 왜곡해서 판단하기 마련이므로, 작가는 오히려 그의 국가, 그의 궁정 및 도시의 취미를 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비평가들도 작품이 규범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정해야 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국민적 차원에서 교육적 노력은 엿보이지만 다수의 일반 대중을 포괄하지 못 했다. 그러나 문예사적으로 고트세트의 비평은 이전의 문헌학적 비평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문적인 비평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19세기의 서적비평의 토대를 이루었기에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한편 고트세트와 다르게 동시대 사람인 Bodmer와 Breitingner는 작품을 평가할 때 이성을 척도로 하기보다 정서적인 것, 감동적인 문체, 상상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등에도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건전한 공상이 비판이라는 수단에 의해 모든 면에서 검토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감각이란 것은 거짓판단을 내리거나 애매하게 평가해버리기 쉬운 의심스러운 것이었기에 감각주의적 취미판단은 이성에 준한 예술법칙에 묶여버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진보적 시민계층의 이해에 입각하여 전문적 비평으로 실제화시킨 사람이 레싱(Lessing)이었다. 레싱은 비평가를 교양을 갖춘 비전문가들과 전문적 미학을 가진 철학자 사이를 매개해주어 간격을 좁히고 취미의 일반화 시키기 위한 중개인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레싱은 비평가들의 이러한 중개과정에서 궁정의 규범들을 허례허식으로 치위하고 단호히 배격하였다. 레싱은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문예작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 드라마를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드라마의 본질상 ‘직접성’과 ‘공공성’이란 면에서 일반 시민의 도덕을 교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 (3) ‘교육의 장’ 연극

‘공공의 장’으로 유일했던 당시의 연극무대를 계몽주의자들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도덕을 교화시키려 하였다. 무대가 갖는 시공간적인 직접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도덕성을 비판함으로써 정치비판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즉, 국가의 공적영역에 대립하여 시민의 사적영역을 통해서 시민계층의 가치와 삶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연극극장 상황은 불모지였다. 문화전반을 주도했던 궁정은 자신들의 귀족적 취향에 따라서 프랑스의 고전극과 이태리의 오페라를 즐겼던 반면, 일반 서민들은 초라한 유랑극단의 빈약한 레퍼토리를 즐길 뿐이었다. 열악한 외적 조건<sup>9)</sup>만큼이나 당시 연극의 내적조건<sup>10)</sup>은 열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트세트는 우선 시민계층에게 계몽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무질서한 유랑극단을 개선코자 하였다. 그는 극장이 저급하게

9) 경제적으로 풍족한 궁정극단에 비해 유랑극단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상영해야 했고, 값싼 입장료를 받아야 했으며, 관객 수조차 제한을 받았다. 더구나 모국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70~80년대로 접어들어서야 독일어로 연극이 행해질 정도였다.

10) 예를 들어 일정한 대본 없이 즉흥적인 연기가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배우들의 역할은 고정될 수 밖에 없었다. 대본을 써야 하는 작가 자신은 실제 상영 문제를 하찮게 여겼으며, 자신들을 비교적 높은 사회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문학과 실제 무대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극의 질은 저하되었다.

된 주된 요인을 작품과 무대의 분리로 보았기에, 형식화된 문학을 파괴시키는 즉흥 코미디를 비난하였고, ‘규칙에 합당한 극(regelmäßige Schauspiel)’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극을 상연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계몽을 목표로 두었으며, 상연무대의 개선보다는 문학작품을 통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맞춰 배우들은 언어기교를 정확해야 했고, 작가들도 규범에 맞는 작품을 써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극은 세련된 내용들을 창출하며, 품위 있는 대사와 프랑스의 화려한 궁정의상을 모방한 배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연극개혁은 지나치게 규칙과 교훈성을 강조함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 독일 연극무대의 개선에 고트셰트가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싱은 고트셰트가 요구했던 개선들을 아무 쓸모 없는 것이며 오히려 연극무대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독일에 적합한 사고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프랑스의 고전주의를 유입시켜 연극무대를 프랑스식으로 구성해버린 것을 비판하였다. 레싱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프랑스 등과 같은 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제적인 문제를 자발적으로 주제화하는 국민극장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외양상으로만 현실화되었다. 당시 국민극장을 통한 시민계층의 계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극장을 통한 정치도덕적 계몽의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 4. 참고문헌

- 「독일문학사」, 프리츠, 마르타니 저, 을유문화사, 1989, 222
- 「철학사2-독일 근대철학에서 중국 근대철학까지」, Akademiya Nauk SSSR, 임석진 감역, 중원문화, 2012.
-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문화의 역사Ⅲ-근대편」, 로버트 램, 이희재 옮김, 사군자, 2001.
- 「18세기 독일 계몽주의의 문학사회 고찰」, 김연순, 성균관대학교 수선논집, 1992.
- 「독일의 계몽주의: 현 시대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 김지현, 전남대학교